e-ISSN 2713-6353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4.593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역량의 관계

송인자, 정미정^{*}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Disaster, Attitude toward Disaster and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Inja Song, Mijung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 광역시와 J도 소재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간호사 123명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2월 15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였다. 연구 결과 수간호사 이상(F=3.89, p=.023), 총 경력 20년 이상(F=5.34, p=.002), 재난간호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재난간호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3.87, p<.001). 또한 재난간호역량은 재난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재난에 대한 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간호역량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실무중심 재난간호교육 프로그램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태도, 역량, 재난, 요양병원, 간호사, 인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perception of disaster, attitude toward disaster and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in nurses of long-term care hospitals and determine correlations between these factors. The study sampled 123 nurses at seven long-term care hospitals in G metropolitan city and J provinc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February 15 to April 30, 2021.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nurse is a head nurse or above (F=3.89, p=.023), has a total career length of 20 years or more (F=5.34, p=.002), and has received disaster nursing education (t=3.87, p<.001), participant's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is significantly high. In addition,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ption of disaster bu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ttitude toward disaster.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a practice oriented disaster nursing education is required as an intervention program, along with improving the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in nurses of care hospitals. Therefore,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of nurses at long-term care hospitals.

Key Words: Attitude, Competency, Disaster,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Perception

*Corresponding Author: Mijung Jung(mijeong@kwu.ac.kr)

Received March 4, 2022 Accepted April 20,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인 요양 시설이 2008년 375개소, 2012년 1,646개소, 2016년 3,137개, 2020년 3,850개소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1]. 요양병원은 30인 이상의 요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질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다[2]. 요양병원의 환자는 간호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상세 불명치매・뇌질환 등으로 인지 기능과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와상 상태가 많은 편이다[3].

요양병원 간호사는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불안정한 환자 상태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책임감과 독립심이 더욱 요구된다 [4]. 요양병원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행동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대응이 어렵고, 스스로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가 많아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5].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1년여 동안 72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환자가 343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2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6]. 이처럼 요양병원 환자들은 재난에 대해 취약성(vulnerability)이 높은 재난 약자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및 재난간호역량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강풍, 해일, 대설 등의 자연 재난과 화재, 폭발,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7]. 사회재난은 예측이 어렵지만,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5],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사회재난 발생시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가장 최접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재난간호역량이 더욱 강조된다.

재난 인식은 재난에 대한 이해와 재난으로 겪게 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8]. 재난 발생 시 간호 사의 재난간호, 응급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역량이 중 요하지만, 아직 보건 의료계 전반에 재난간호를 강화해 야 한다는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9,10].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재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체계적인 재난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11].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다수 사상자로 인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 치고, 특히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병원의 일 상적 진료 능력을 초과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5], 요양병원도 평소 재난에 대한 응급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재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에 대한 태도는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 단계에 걸쳐서 갖게 되는 대처 자세를 의미한다[8]. 재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증진되지만, 재난 상황의 경험 부족은 재난 대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승시키게 된다[12]. 재난에 대한 대비와 예방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필요하다[13]. 한편재난에 대한 태도는 재난 인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 보건 의료 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재난 인식 및 재난에 대한 태도 증징이 필요하다[8.14].

재난간호역량은 간호사가 재난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간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6]. 재난 시 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에 의료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의료인 중 간호사가 가장 유용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14,15]. 이에 국제간호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함께 4개 영역의 130개 재난 간호역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5]. 간호사는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 다양한 질병 및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간호역량이 중요하다[16]. 또한 재난간호역량은 전문분야의 간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다[17]. 요양병원은 간호업무, 근무환경, 조직의 특성 등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18]. 따라서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요양병원 간호사 들의 재난간호역량은 필수적이고 잘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재난간호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군간호사 관생도, 보건소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종합병원 간호사, 임상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다[19-24].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재난간호역량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역량의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요양

병원 간호사를 위한 재난간호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역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재난 간호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역량의 차이를 파악하다.
- 다. 대상자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 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 라. 대상자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 광역시와 J 도의 200병상 이상 의 7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본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25]에서 상관 관계 분석을 위해 양측검정, 상관계수 0.3, 유의수준 .05, 검정력 .90로 필요한 표본 수는 112명으로 산출되 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편의 추출하였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3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 불충분한 답변 13부를 제외한 123부를 최종 분석에 포함해 충분한 대상자를 수집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 간호역량과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모든 측정도구는 개발자 및 번역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

2.3.1 재난 인식

본 연구에서 재난 인식은 Lee, Han과 Cho[11]가 개발한 재난 인식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총 20문항으로 재난 책임 8문항, 재난 발생 예방과 재난 대응, 복구에 대한 재난관리현황 6문항, 재난 원인 6문항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Lee, Han과 Cho[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1이었다.

2.3.2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에 대한 태도는 Moabi[26]가 개발하고 Park 등 [21]이 번안한 재난 관리 태도 (The Attitudes toward Disaster Management scale)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재난 준비 필요성, 재난 관리와 관련된 총 11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역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Moabi[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2, Park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6이었다.

2.3.3 재난간호역량

본 연구에서 재난간호역량은 Noh[27]가 재난간호 핵심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 의 대상자에게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Noh[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21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자료수집기관에 방문하여 간호부에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간호부(과)에 설문지를 제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요양병원 병동 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연구 설명문을 읽어본 뒤 하루 이상 충분히 연구 참여에 대해 숙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00141465 -202011-HR-001-43)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볼 시간을 갖게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나. 대상자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역량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 라. 대상자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역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부석하였다.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45세로, 40대가 45명(36.6%)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121명(98.4%), 남성이 2명 (1.6%)이었다. 교육 정도는 학사가 75명(61.0%)로 가장 많았고, 전문 학사 37명(30.1%), 석사 이상이 11명 (8.9%) 순이었다. 직책은 일반 간호사가 89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수간호사 이상 29명 (23.6%), 주임 간호사

5명 (4.1%)였다. 총 경력은 평균 13년이었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52명(42.3%)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근무경력은 평균 6년이었고, 5년 미만이 52명 (42.3%)로 가장 많았다. 재난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77명 (62.6%), 없는 경우는 46명(37.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3)

Variables	Categories N %		M(SD)	
				45.07(9.60)
Age (years)	⟨30	6	4.9	
	30~39	33	26.8	
(years)	40~49	45	36.6	
	≥50	39	31.7	
Gender	male	2	1.6	
Gender	female	121 9	98.4	
	associate degree	37	30.1	
Education level	bachelor's degree	75	61.0	
	≧master's degree	11	8.9	
	staff nurse	89	72.3	
Position	charge nurse	5	4.1	
	≧head nurse	29	23.6	
				13.15(8.41)
	⟨5	20	16.3	
Total career (years)	≥5, ⟨10	24	19.5	
(years)	≥10, ⟨20	52	42.3	
	≥20	27	21.9	
Long-term				6.01(3.67)
care hospital	⟨5	52	42.3	
career	≧5, ⟨10	46	37.4	
(years)	≥10, ⟨20	25	20.3	
Experience of disaster	yes	77	62.6	
education	no	46	37.4	

3.2 대상자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 역량 정도

대상자의 재난 인식 정도는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평균 3.63±0.28점이었고, 재난에 대한 태도는 평균 평점 4점 만점에 평균 3.65±0.27점, 재난간호역량은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3.05±0.75점이었다(Table 2).

Table 2. Result of Variables Measurement

(N=123)

Variables	Possible range	Min	Max	M±SD
Perception of disaster	1~5	2.90	4.30	3.63±0.28
Attitude toward disaster	1~4	2.55	4.00	3.65±0.27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1~5	1.40	4.80	3.05±0.75

Table 3. The Differences of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3)

		Categories M	SD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Variables	Categories			t/F	p (Scheffe's test)
	⟨30	3.31	0.69	2.60	.055
Age (years)	30~39	2.85	0.75		
	40~49	2.95	0.80		
	≥50	3.28	0.66		
Gender	male	2.60	1.23	0.05	.399
Geridei	female	3.05	0.75	-0.85	
	associate degree	3.04	0.67	0.27	.763
Education level	bachelor's degree	3.03	0.78		
	≧master's degree	3.21	0.84		
	staff nurse ^a	2.93	0.71	3.89	.023* (a(c)
Position	charge nurse ^b	3.19	0.67		
	≧head nurse ^c	3.37	0.83		
	⟨5ª	3.04	0.77		.002** (b⟨d)
Total carrer	≥5, ⟨10 ^b	2.65	0.75	5.34	
(years)	≥10, ⟨20°	3.02	0.72	3.34	
	≥20 ^d	3.45	0.62		
Long-term care hospital carrer (years)	⟨5	3.05	0.71	0.09	.918
	≥5, ⟨10	3.07	0.80		
	≥10, ⟨20	2.99	0.77		
Experience of disaster education	yes	3.25	0.66	3.87	⟨.001***
Experience of disaster education	no	2.71	0.79	3.07	\.00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123)

Variables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Perception of disaster	Attitude toward disaster	
variables		r (p)	r (p)	r (p)
Competency of disas	ter nursing	1		
Perception of di	saster	.12 (.183)	1	
Attitude toward of	lisaster	30 (.001)**	.33 (<.001)**	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역량은 직책, 총 경력, 재난교육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연구 결과 수간호사 이상(F = 3.89, p= .023), 총 경력 20년 이상(F = 5.34, p=.002), 재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재난간호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 = 3.87, p (.001).

3.4 대상자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 역량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은 재난 인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고(r=.12, p=.183), 재난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0, p=.001). 재난 인식과 재난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33, p=.001)(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요양병원 간 호사의 재난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3점이었다. 국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Seo와 Suh[19]의 연구에서는 3.32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Han과 Cho[11]의 연구에서는 3.20점,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28]의 연구에서는 3.55점 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 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연구가 수행된 시대에 따라 재난 관련 사건 경험이 다르고, 연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재난 인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재난 책임 영역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가 4.5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 으나, 재난관리 현황 영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책임과 처벌이 잘 이루어진다.'는 2.3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n과 Lee[23]의 연구에서 한국 간호사들은 재난 발생 시 국가적 대응이 우선이라고 인식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재난을 인식함에 있어 서 국가의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재난 발생 시 책임과 처벌 관련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기관과 국가 수준에서 요양병원의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선된 재난관리체계 를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질 적인 방안 중 하나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8], 지자체 별 조례 제정, 시행 및 개정을 통해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5점이었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한 Lim과 Jo[22]의 연구에서는 3.53점,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한 Park과 Kim[21]의 연구에서는 3.29점으로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에 대한 태도 정도가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메르스, 진도 여객선 침몰, 섬진강 홍수, 우면산 산사태, 재건축 지역 건물 붕괴뿐만 아니라, 최근 장기화하고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태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태도는 보통 선천적인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학습되기 때문에[8], 본 연구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 간호사들의 재난에 대한태도가 좋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향후 요양병원 재난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기대할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재난 계획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가 3.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우리 병원에서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가 2.70점으로 가장 낮았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대체로 예측하 기가 어렵고, 갑작스럽게 발생한다[5].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경우 실제 자신의 병원에서 의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낮은 태도지만, 재난 계획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태도를 보여,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게 재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병행하여, 재난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명점 3.05점이었다. 선행연구들에서 대상자의 재난 대비역량 또는 재난간호역량은 종합병원 간호사는 3.22점 [23], 병원 간호사는 3.05점[29]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인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간호역량은 일반병원 간호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의 경우 3.45점[30]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응급실 간호사가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재난간호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고[15], 병원 규모, 직무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민감하거나 취약한 대상자 집단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수 있다'가 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난 상황시 간호 제공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있다'가 2.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경우 간호 대상자인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적절한 재난간호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기록, 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난간호역량 증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간호역량 증진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역량의 차이는 직책이 높을수록, 총 경력이 많을수록, 재난간호 교육을 받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난간호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Ahn, Kim과 Kong[29]의 연구에서 연령이 많고, 석사학위, 응급실 근무, 수간호사인 경우 재난간호역량이 높았다. 또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한 Lim과 Jo[22]의 연구에서도 근무경력, 직책, 재난교육 여부에 따라재난 대비역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16]의 연구에서도 25세 이상, 수술실간호사, 재난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재난간호역량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경력이 많고, 직책이 높아질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경우 경력 기간이 짧거나 일반 간호사 를 중심으로 재난간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재난 교육 경험이 재난 대비역량 또는 재난간호역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22], 재난교육을 학부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여 예비 간호사의 재난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를 쌓을 필요가 있다 [15]. 또한 임상에서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간호사 보수교육, 차별화된 원내 직무교육을 통해 재난 간호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24].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 인식은 재난간호역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간호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Seo와 Shu[19]의 연구에서도 재난 인식은 재난간호역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16]의 연구에서 는 재난 대비인식과 재난간호역량이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응급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Park과 Kim[21]의 연구에서는 재난 지식, 재난 관련 경험이 재난간호역량이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재난 인식과 재난간호역량의 상관관계는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는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서, 추후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 지역을 확대하 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에 대한 태도와 재난간호역량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재난 태도와 재난 대비역량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22],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재난 대비 태도와 재난 대비역량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31]. 선행연구의 경우 대체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난에 대 한 태도와 재난간호역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직무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jzen[32]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따르면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행동 의도'라는 매개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재난에 대한 태도와 재난간호 역량은 비록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계수 값의 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반복연구를 통한 재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5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연령, 경력이 많아 재난에 대한 태도가 좋았 으나, 요양병원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응급이나 재난 상황 을 접할 기회가 비교적 적어, 재난간호역량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추후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에 대한 태도와 재난간호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타당도 높은 도구를 고찰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재난 인식은 재난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과 Kim[33]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재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재난 인식과 경험 및 학습을 통한 재난에 대한 태도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재확인되 었기 때문에,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 인식과 재난에 대한 태도 증진은 함께 파악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간호역량 정도를 파악하고, 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직책, 총 경력, 재난간호 교육 경험에 따라 재난간호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재난 간호역량은 재난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재난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재난 인식과 재난에 대한 태도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재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개선 보다는 경력별, 직급별로 요양병원의 특성과 상황 에 맞는 차별화된 실무중심 재난간호교육과 도상훈련이 정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재난간호역량 증진을 위해 관련 요인, 영향 요인을 고찰한 반복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양병원 간호사를 위한 경력별, 직급별로 단계적인 난이도를 적용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융합한 사례 기반 재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을 제어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Long-term care insurance statistics for the elderly.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 Id=DT_35006_N019&vw_cd=MT_ZTITLE&list_id=350_35006_A004&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 [2] J. S. Kim, Y. D. Seon, G. J. Lee, I. D. Choi, H. Y. Lee, & K. A. Kim. (2013). A study on how to establish the role of nursing hospitals and nursing facilitie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 K. S. Kim & H. O. Park. (2016). The moderating effect of empowerment in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for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J Korean Gerontol Nurs.* 18(1), 32-40.
- [4] J. R. Kim. (2010). A study on self-esteem, role conflict, and work stress and the turnover intention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5]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2017). *Understanding the latest disaster nursing.* Paju: Soomoonsa.
- [6] H. S. Chea. (2021. 2. 26.). 'Corona Prison' Nursing Hospital, double the death rate of general hospitals even befor Corona, JoongAng daily news,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0642#home.
- [7] Ministry of Legislation. (2021).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 [8] M. S. Kim, S. Y. Kim, B. H. Park, & Y. J. Choi. (2017). The Effect of Disaster Awareness of Social Service Employees on Disaster Attitude. *Crisisonomy*, 13(3), 93-111. DOI: 10.14251/crisisonomy.2017.13.3.93
- [9] T. G. Veenema, A. Griffin, A. R. Gable, L. MacIntyre, R. N. Simons, M. P. Couig, et al. (2016). Nurses as leaders in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a call to actio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8(2), 187-200.

- DOI: 10.1111/jnu.12198
- [10] E. G. Ann, K. L. Keum & S. Y. Choi. (2011). A Study on the Disaster Preparedness of Nurses in Some Korean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Korean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9(1), 94-109.
- [11] Y. R. Lee, S. J. Han, & C. M. Cho. (2016).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Perceived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4), 237–242. DOI: 10.17547/kjsr.2016.24.4.237
- [12] K. Chapman & P. Arbon. (2008). Are nurses ready?: Disaster preparedness in the acute setting. Australasian Emergency Nursing Journal, 11(3), 135-144. DOI: 10.1016/j.aenj.2008.04.002
- [13] S. Alim, M. Kawabata, & M. Nakazawa. (2015). Evaluation of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and disaster drill for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5*(1), 25-31. DOI: 10.1016/j.nedt.2014.04.016
- [14] S. J. Wang. (2008). Exploration on disaster nursing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4(2), 94-104.
- [15] J. Nilsson et al. (2016). Disaster nursing: Self-reported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nd registered nurses, with focus on their readiness to manage violence, serious events and disaster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17(March 2016), 102-108.
 - DOI: 10.1016/j.nepr.2015.09.012
- [16] J. Y. Cho. (2019). Factors affecting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8), 93-101. DOI: 10.22156/CS4SMB.2019.9.8.093
- [17]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9).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 [18] Y. S. Hwang & E. Cho. (2016). Factors Influencing Nurse Turnover Intention of Senior Convalescence Hospitals in the Metropolitan A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5(3), 156-167. DOI: 10.5807/kjohn.2016.25.3.156
- [19] S. H. Seo & E. Y. Suh. (2018).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disaster nursing competency among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cadet.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36(1), 61-70.

[20] D. C. Uhm, Y. G. Park, & H. J. Oh. (2016). Disaster Preparation of Visiting Nurses in Public Health Center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2(2), 240-249.

DOI: 10.5977/jkasne.2016.22.2.240

- [21] H. Park & J.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of emergency nurses. Applied Nursing Research, 37(2017), 1-5. DOI: 10.1016/j.apnr.2017.06.004
- [22] D. H. Lim & M. J. Jo. (2019). Influence of Nurses' Attitude toward Disaster Preparedness and Clinical Competence on Disaster Preparedness Competenc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5(12)*, 47-58.

DOI: 10.14251/crisisonomy.2019.15.12.47

- [23] S. J. Han & J. H. Lee. (2020). Disaster Perception, Preparedness, Management and Competency-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Hospital Nurses.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6(2), 91-108.
- [24] N. H. Kim. (2019). The Effect of Disaster Care Program on Disaster Perception, Attitude and DIsaster Nursing Capacit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1)*, 553-562.

DOI: 10.35873/ajmahs.2019.9.11.050

- [25]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DOI: 1554-3528
- [26] R. M. Moabi. (2008).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Health Care Workers regarding Disaster Preparedness at Johannesburg Hospital in Gauteng Provinc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Johannesburg.
- [27] J. Y. Noh. (2010). Nurse's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8] S. J. Choi. (2021). A survey on nursing professionalism,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disaster response of emergency room nurses. Master's Thesis, Gacheon University, Incheon.
- [29] H. Y. Kim, S. A. Ahn, M. H. Kim & J. H. King. (2019). A Study on Knowledge, Preparedness, Core Competencies of Disaster Nursing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0), 39-47. DOI: 10.22156/CS4SMB.2019.9.10.039

- [30] Y. J. Park & E. J. Lee. (2015). A study on ego-resilience, disaster experience and core competencies among emergency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1(1)*, 67-79.
- [31] S. H. Han. (2021). A Study on the Disaster Preparedness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14(1), 237-249.

DOI: 10.52902/kjsc.2021.14.237

- [32] I, Ajzen. (2002).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 [33] H. Song & H. S. Kim. (2020). Convergence of the Factors Influencing of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s and Self-Resilience on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1),

DOI: 10.17703/JCCT.2020.6.1.351

송 인 자(In Ja Song)

[정회원]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석사)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가호학박사)

2012년 4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재난간호, 노인간호, 재활

· E-Mail: na1004nr@hanmail.net

정 미 정(Mijung Jung)

[정회원]



2008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2013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2019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시뮬레이션 교육, 만성질환 간호

· E-Mail: mijeong@kwu.ac.kr